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의 역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주문영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산천초목이 붉게 물들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은 이제 겨울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라 조용히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계절이건만 이일저일 하루 일에 시달리다 보니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적당한 핑계거리만 늘어가는 것 같다.

요즘 마스크를 통하여 들려오는 말 중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라 생각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라 하겠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마디로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FTA를 이루기 위한 선행과제인 상호인정협정(MRA)은 자유무역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승인서가 상호인정되게 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상호인정협정(MRA)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것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실감하기도 힘들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일

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협상대상국과의 관계 및 상대방의 이익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는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하지 않고 있으려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보았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및 상호인정협정(MRA)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220V, 60Hz의 전원을 가정에서 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제품은 위의 전압조건에 맞추어져 있으며, 일부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들이 위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평가를 국가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모두 220V, 60Hz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을까? 불행이도 그렇지 않다. 각 나라마다 자국에 맞는 적합한 전원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국에 맞는 전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국의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규격조건을 맞추어야 하듯이 우리나라의 제품을 외국에 수출 할 때에도 해당국의 규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온대지방, 열대지방에 따라 조금씩 요구사항이 달라지기도 한다.

만약 자유무역협정이나 상호인정협정을 맺게 된다면, 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성적서나 데이터가 협정대상국에서 그대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적합성 평가기관의 능력이 위에서 언급된 협정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 적합성 평가기관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척도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CB 시험소 및 국가인증기관(NCB)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CB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ies)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EE)에서 지정한 국제공인시험소를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3개 국가에서 가입을 하고 56개의 국제공인 국가인증기관(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 및 135개의 CB 시험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에 원칙적으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상호인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 및 미주를 비롯한 거대시장을 보유한 국가 및 선진국들이 모두 가입되어 그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업체들이 CB 승인서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각 국가를 대표한 기관들이 자국에 유리하게 국제규격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제공인시험소(CBTL)나 국제공인 국가인증기관(NCB)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IECEE)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국제적인 시험평가 능력과 관련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만큼 인정

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공인시험 및 인증기관인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포함한 2개의 NCB와 5개의 CBTL이 있다. 규격분야 역시 하나의 산업분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MRA와 FTA를 고려한다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된다. 규격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세계의 유력한 규격기관에서는 자국에 유리하게 국제규격을 유도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역시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협정을 이루어 낸다는 것은 국익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이 맺어지기 전 까지 수많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각 협정대상국의 대표자들은 자국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력과 자원, 장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략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시험인증기관은 국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과 충분한 시험측정장비 및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협상은 상대국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타협을 하고 서로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략적으로 뛰어난 국가만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맺을 당시 상대방이 패하였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협상 후에 그 결과로써 인식하였을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MRA나 FTA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많은 예측과 가정만이 난무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흐름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 처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하였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림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보다 좋은 협상을 얻어내는데 국제공인시험 및 인증기관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